

# 文-金 ‘민족영산’ 백두산 천지 함께 오른다

삼지연 공항서 차편으로 장군봉 이동  
날씨 맑으면 천지로 등반 예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을 함께 간다. 날씨가 좋을 경우엔 천지까지 뺄을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젠테이션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두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이 ‘천지까지 가느냐’고 질문하자 “일단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까지도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상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상이 좋지 않으면 중간쯤에 끊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산행 방식에 대해서는 “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 궤도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보다.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제 백두산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사이의 일”이라며 방북 이전에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가더라도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을 통해 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쪽 아시는 분들을 통해 중국을 거쳐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하며 이를 마다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북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동행 인사에 대해서는 “김정

숙 여사는 당연히 (함께) 간다”며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을 포함한)수행원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안공항에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 거기에서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삼지연에서 (환송행사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 공식수행단, 특별수행단 일행은 삼지연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프레젠테이션에서 두 정상에 백두산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영산이고 상징적인 산”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여러 차례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땅을 통해 천지를 오르고 싶다고 말씀하신 만큼 북측에서 이런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 이번 회담에도 옥류관 랭면 먹었다

정상회담 마치고 오찬 위해 이동  
시대상·분위기 따라 메밀 함량 달라져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그 냉면은 이번 회담에도 함께 했다.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위해 옥류관으로 이동했다.

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오찬 장소로 유명한 옥류관은 2010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이 137만 6000명, 하루 약 3800여명에 이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평양냉면을 맛봤다.

북측의 옥류관 수석 주방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설치한 옥류관 제면기에서 직접 면을 뽑아 회담장 만찬에 평양냉면을 내놓은 것. 문대통령이 “만찬 음식으로 옥류관 냉면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면서 문 대통령은 옥류관을 직접 방문해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게 됐다.

평양냉면을 한 번쯤 접해본 사람들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평양사전공통취재단

“밍밍하다, 심심하다” ‘담백하다’ 등으로 평양냉면 맛을 표현한다. 그도 그럴 것이 평양냉면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할 단어가 딱히 없기 때문. 평양냉면을 맛본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맛인지 표현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맛이 섞여있는 은은한 맛을 느낀다”고 말한다.

옥류관 평양냉면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육수’와 ‘면’이다. ‘육수’는 소, 돼지, 닭 고기를 배합해 우려내는 일반육수와 달리 꿩과 닭 육수를 이용해 깊은 맛이 난다.

반면 담담하고 쫄깃한 면은 메밀의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대상과 분위기를 담으며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메밀과 전분 함량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 것. ‘고난의

행군’ 시기 메밀의 소출이 줄어들자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96년 북한의 조선료리협회가 출간한 ‘조선료리전집’에는 메밀과 전분함량이 8대 2라고 적혀있지만 현재 평양냉면의 메밀과 전분함량 비율은 5대 5나 6대 4 정도다.

옥류관 지배인 명예화씨는 ‘육수’와 ‘면’만 같다고 옥류관 평양냉면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의 책을 통해 그는 “평양냉면은 육수와 면 외에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낫그릇, 낫짓가락, 낫잔’, ‘시원하고 쫄깃(시원하고 차가운) 육수’, ‘꾸미(고명)’가 어우러져야 평양냉면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 평양시민과 함께 만찬... 文, 北서도 소통

대동강 수산물식당서 환송만찬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환송 만찬을 할 예정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젠테이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저녁에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인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방문해 북측이 방에서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된다.

올해 7월 공사를 끝내고 개업한 대동강수산물식당은 대동강변에 배 모양으로 세워진 대형 식당이다.

식당에서 밖을 보면 대동강과 릉라인 민유원지, 5월1일경기장, 청류벽 등이 한눈에 보인다.

식당 1층에는 철갑상어·연어·칠색송어·조개류·자라 등을 모아놓은 실내 수조와 낚시터가 있고, 갯 잡은 생선을 요리해 내놓는 식당은 대부분 2층과 3층에 있다.

가격이 비싸 서민이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연회 공간을 갖춰 평양 시민들이 큰 행사 때 종종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식당에 대해 ‘바다와 강, 땅

에서 나는 모든 산해진미를 앉은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일등급의 봉사 기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심혈과 노고를 다 기울이시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식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짓고, 부지도 선정했으며, 시찰도 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리설주 여사와 준공을 앞둔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둘러보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만찬을 가급적 평양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평양사전공통취재단

## 음악으로 통한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 - 리설주 여사  
옥류아동병원·음악종합대학 방문

남과 북의 퍼스트레이디는 ‘음악’을 통해 교감을 나눴다.

김정숙여사는 19일 오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김일성 주석의 고향인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원조격인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인기를 끌면서 1989년 5월 부지 30만㎡, 건평 12만㎡ 규모로 나름대로 현대적이고 화려하게 건설됐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예체능 영재학교인 금성중학교를 부속으로 두고 있어 이곳 학생 대부분이 방과 후 궁전에서 음악 등 예술교육을 받는다. 리설주 여사 역시 금성중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소년궁전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은 만큼 리 여사에겐 사실상 모교나 다름없다.

당초 이날 김 여사의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발걸음에는 리 여사도 함께 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바뀌면서 김 여사만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내에 있는 예술체조소서실, 수영장, 극장을 둘러봤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북한의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기관으로 알려진 곳이다.

김 여사와 리 여사 사이에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평양 방문 첫째 날인 지난 18일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 여사와 예술단 가수 출신인 리 여사의 공통점을 살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옥류아동병원 방문 일정을 양측 여사들이 함께 소화했다.

리 여사는 또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를 환영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부인과 함께 평양에서 타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부인과 동행하는 통상적 외교 관례를 따르면서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에 양측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로 통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때 각각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와 동행했었다.

일각에서는 리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위원장’이 아닌 ‘남편’이라고 칭하며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한 것은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 외교가 가능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두 퍼스트레이디가 옥류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북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